



2018년

송년사

보은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서 시작했던 2018년 무술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은군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가뭄과 폭염, 태풍, 장마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서 변화와 발전으로 보은인의 긍지를 드높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보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약 90만 여명의 관광객이 온 대추축제의 성공, 그리고 전국대회·전지훈련 유치·군민 스포츠의 생활화로 기업, 농업, 관광 등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보은군의 밝은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금년에 이룩한 성과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읍면 순방 및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민원상담 3,330건,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 운영, 사전심사 청구 150건 등 군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금년에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중학생 35명이 미국·캐나다·일본을, 고등학생 15명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의 선진문화를 체험하는 등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47개리 전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주민생활안전 CCTV 20개소 추가 설치 및 530대의 관내 CCTV 통합운영으로 각종 사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347억 여원이 투입되는 보청·속리산·오덕 자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비롯하여 233억원으로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고, 352억원의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그 밖에 26개소의 소하천 정비, 중동교·동암교 재가설공사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100% 분양된 보은산업단지 1공구는 42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 공급사업과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12월 10일 (주)한프와 한국동서발전(주)이 보은산단에 총사업비 6,368억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규모인 100MW급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를 2020년 12월까지 완공하는 협약을 체결, 향후 보은군의 전력문제해결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활정착을 위한 행복주택 200세대 중 1차 120세대는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였고, 2차 80세대도 착공을 앞두고 있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보은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1일 6천톤의 교사노후정수장을 354억원 예산으로 풍취리로 이전하여 하루 9천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되었고, 상수도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수한·탄부면 일원까지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보은종합시장 고객휴게실 및 상인교육공간 설치, 전통시장 가는 날 정례화 및 지역상품권 유통 활성화 등 시장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5,963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보은군이 2018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밖에도 개통이후 사고위험이 많았던 보은IC 선로 개량 공사와 함께 보은-인포간 국도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남일-보은간 국도 시설개량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6개 노선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127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 지역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함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었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농업·농촌 복지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농촌 복지여건 향상에 노력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및 기반확충을 위한 토양개량제, 못자리용 상토 공급 등 16개 사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영농자재·인력 등 2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9종의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고품질 오이·마늘생산 지원사업, 과수생산 지원사업 등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농산물 수출연구과제에 선정되어 대추·사과 가공

제품이 중국으로 첫 수출길에 오른 것과 함께 일본에도 생대추 0.8톤을 수출하는 등 보은군의 수출가능 우수 농 특산물을 지속 발굴하여 해외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당도가 월등하고 단위 생산량이 높은 신품종 엔비사과 재배단지 20ha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 까지 100ha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사과산업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농촌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수한지역 가뭄을 해결할 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군도이설 사업을 착수하였고, 세종·원정지구 농촌용수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발작물 중형관정 지원, 43건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정착자금 및 농어업 창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21억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인 정보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페스티벌 참가, 예비 귀농귀촌인 학교 운영 등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업·농촌을 이끌 농업인단체와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대학, 품목별 농업인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560대의 농기계임대사업과 450농가, 200ha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으로 질병, 고령 등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을 제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고품격 문화·관광·체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0개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21개 교실의 문화학교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지역문화 기반을 강화하였고, 군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30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태생으로 49세 되던 1545년 처가인 보은 종곡으로 내려와 대곡서실을 짓고 평생을 이곳에서 은거한 성리학자로 보은학풍의 선구자였던 성운(號 대곡)선생의 문집인 “역주 대곡집”을 발간한 것과,

2018 결초보은 역사·문화 아카데미 8강 명사들의 강연 내용을 책자로 발간한 것은 보은의 역사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범주사를 포함한 7개 사찰이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우리나라 13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범주사의 가치 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10월 12일부터 10일간 개최한 「2018 보은대추 축제」는 제1회 군민의 날 행사, 오장환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 전국 국악경연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민속소싸움대회 7일간 개최,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연주대회, 보은 갓 댄싱킹 등 46개의 공연과 VR 및 드론 체험 등 32개의 전시 및 체험, 7개 부대행사 및 9개의 연계 행사로 약 90만 여명의 관광객이 보은에 와서 대추 등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제품, 먹거리 장터 등 총 95억 8천여 만원을 구매해 감으로써 전국 최대·최고의 농특산물 축제로 정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은스포츠파크에 다목적체육관, 야구 등 실내연습 경기장, 씨름연습장 등 시설을 추가하였고 내년 아시아

우드볼 대회를 치를 경기장도 착공하였으며,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등 47개 대회 개최, 육상꿈나무를 비롯 580여개 전지훈련팀 유치, 도·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여가활용 군민 등 약 33만 여명이 보은군 스포츠 시설을 이용, 건강증진 및 농업, 관광 등 각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짚라인 등 산림레포츠단지, 다문화 체험마을,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50년대 시간여행마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숲체험 휴양마을에 야외수영장 공사와 말티재 관문 등 3개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였으며, 선조들의 농업에 대한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보은농경문화관과 대장간 체험장, 삼년산성 고분테마공원, 신라인과 함께 걷는 역사 탐방로 3.3km를 조성하였고, 속리산면 상판리에서 비룡저수지를 연결하는 6km의 질마재 옛길 복원사업도 완공하였습니다.

또, 한글창제의 주역 신미대사와 세조와 정이품송 천년 만남을 테마로 한 훈민정음 마당의 준공으로 관광보은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출산·인구감소 극복을 위하여 전입장려금 140명, 출산장려금 173명, 출산 육아용품 지원 256명, 해피마미·해피아이교실 및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연금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20명의 셋째아 이상 출산모가 60세에 도달하면 30년간 연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42억원을 들여 주간보호센터와 노인회관을 준공, 취미활동 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노인회관 운영 및 경증 노인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장수노인수당, 9988행복나누미 사업, 전 마을 경로당 냉방기 설치 등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당을 월8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설비로 제과제빵을 만들어 전지 훈련,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간식제공 및 말티재 관문, 훈민정음 마당 매점에서 판매하는 등 노인·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판매이익금 지급으로 자활·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로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지원하고, 12개의 자활사업 운영과 721건의 위기가정 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은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27과목 329명에게 서예, 음악, 민화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였고, 18과목 5,560명의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여성취업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19,570명 운영, 취약가구 등록 및 관리 2,020가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효과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우리 보은군은 열악한 재정현황을 극복하고자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을 방문하여 624건 1,730억원의 국·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2018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등 32건의 중앙부처 공모 및 평가와 2018년 기업 정주여건개선 사업 공모 등 도 단위 8건의 공모 및 평가에 선정됨으로써 129억 4천여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제2회 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대상, 2018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스포츠마케팅어워즈 2018 본상 수상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2019년에도 우리 공직자 일동은 우리 군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2. 31.

보은군수 정 상 혁